

News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CP 금리는 하락

연합뉴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CP 금리의 상승세는 한풀 꺾여...CP 91일물 금리는 연 2.18% CP 91일물의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1.10%)의 스프레드도 108bp로 전날(109bp) 대비 하락

원화 LCR 최소 90% 이하로...예대율 완화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6대 시중銀 대기업 여신담당 임원 설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대출여력을 갖추고 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최소 9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현재 채안·중안펀드 출자시 은행들 대부분이 LCR을 100%로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

은행 "코로나 대출 부실 어찌죠"...당국 "절차 지켰으면 문책 안해"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는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

케이뱅크, 6천억원 유상증자 추진...KT 역할에 주목

연합뉴스

케이뱅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5천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
예정대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시 6천억원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KT의 지분 확대를 염두

코로나가 자동차보험 손해를 잡았다

한국보험신문

감염 확산 우려 야외활동 자제...3월말 5개 손보사 81.0~76.5%...손익분기점인 70~80%까지 하락
실제로 보험사로 접수된 자동차사고 건수가 급감...3월 5대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건수는 31만2406건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할 때 18.25% 감소

금감원 "자본여력 부족 보험사 경영진·대주주 면담 통해 자본확충 유도"

서울경제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개별회사가 환경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취약분야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개별 보험사의 위험수준 따라 단계별 대응
상시 감시 과정에서 취약성이 예상되면 자본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자율개선협약 체결 및 검사

코로나19 폭락장세에 '투기성' 선물·옵션 거래 급증

연합뉴스

올해 2월 하루 평균 주가지수 선물 계약금액은 30조8천552억원으로 전월보다 58.1% 늘었다. 작년 동기보다는 75.5% 증가
올해 2월 거래대금은 2013년 6월(33조4천889억원) 이후 6년 8개월 만의 최대규모...하루 평균 계약 수는 42만5천788계약으로 전월보다 61.5% 증가

미래에셋대우 "현금성 자산 5兆...아시아나 포기할 이유 없다"

뉴스1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달러 등 외화를 포함해서 5조원 육박하게 들고 있다.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지난해 11월 HDC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다만 HDC현산의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 지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